

찾아가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전북도·임실군·한국소비자원, 임실서 소비자 피해예방법 교육·제품 무상점검 등 진행

전북도는 임실군,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역민의 서비스 수혜 격차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상생과 나눔의 행사'를 임실군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협업이음터'를 통해 성사된 행사로, 소비자 전문가인 한국소비자원의 경험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임실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협업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 소비자 피해예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소비자피해(전북도 소비자상담센터), 법률상담(한국소비자원), 자산관리(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이동상담도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IG생활건강 후원)도 병행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임실군민회관 및 청소년회관 주차장에서는 자동차 5개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와 가전 6개사



전북도는 임실군,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역민의 서비스 수혜 격차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상생과 나눔의 행사'를 임실군에서 개최했다.

(삼성, LG, 오캐캐리어, 위니아 덩채, 경동나비엔, 위니아)가 자사 제품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합동으로 진행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석유 품질 검사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가전사들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대청간제 및 가스안전 점검 서비스도 제공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에 지친 임실군민을

격려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탬이 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한국소비자원과 여러 기업, 기관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소비자의 불리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거래행위는 물론, 각종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도내 인권정책 공유 및 협력을 위한 '2021 하반기 전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구성된 '전북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는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도내 주요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초에는 '전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

여했으며, 하반기에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적극 동참해 도내 인권 증진 협력체계가 한층 넓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한 인권 관련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내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제1차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

획(2017~2021)에 이어 수립 중인 제2차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으로 도내 새로운 인권행정 로드맵 설정 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간연, 인권골드벨, 인권영화 상영회, 인권공모작품 전시전, 인형극 등 다양한 인권 문화 활동을 선보이는 2021 전북도 인권문화축제'가 10월 말 개최 예정임에 따라, 각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전북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 참여기관이 확대된 만큼, 더욱 활성화돼 도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에는 전북경찰청, 전북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도장애인인권옹호기관, 다누리콜센터 전북전주, 전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2021 전라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모습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확대

사업대상자 범위·대상 농기계 기준 확대·보조금 지원 단가 상향

전북도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농촌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도는 트랙터, 콤팩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기존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물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아울러, 농기계 기준도 확대해 기존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콤팩트만 아니라, 등록돼 있지 않은 농기계라도 과거 면세유를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 단가도 상향했다.

트랙터는 생산연도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62만 원까지, 콤팩트는 생산연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김석면 도 농산유통과장은 "내년에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현재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등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2개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자 편의지원 확대 나서

전북 4개 권역 상공회의소 회원사 소속직원 대회 참가시 공가처리 등 논의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의 참가자 모집을 위한 포토티가 한창이다.

아태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전북 4개 권역 상공회의소(전주상공회의소, 익산상공회의소, 군산상공회의소, 전북서남권상공회의소) 사무처(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북소재 기업체 소속직원들에 대한 대회참가 편의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가자 모집이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도내 사업장 소속직원들에게 아태 마스터 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사업장 대표가 대회 참가자들에게 공가(공식 인정되는 휴가)처리를 해주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 4개 권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대회성공을 위



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직위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원 경기지원본부장은 "우리도에서 열리는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

회 참가자 모집이 2023년 2월까지 진행된다"면서 "다음달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을 통해 국내 사업장 직원들까지 편의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전 청원 대상 데이터활용 역량강화 교육

전북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실현을 위해 전 청원 대상으로 '데이터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무실 내 선TV 방송을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동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데이터반행정팀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 팀장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법'과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데이터 행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작년 12월에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대 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4대 추진전략은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이다.

이에, 전북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및 개방, ▲과학적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 빅데이터허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빅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매년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통해 도민과 밀접한 현안을 발굴해 분석·활용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교육 및 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전 청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 사업을 통해 객관적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추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